

Q 검색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신심과 원력으로 재악산 사자평 넘다

현불뉴스 | 입력 2021.10.17 17:11 | 댓글 0



상월결사 18일차 순례 성료...순례 최다인원 300명 참가

해발 1000m 높이 사자평 넘어
어둠 해치고 정상서 광명 맞이
진각스님 음식보시·장사익 공연
울산 숙영 후 18일 통도사 도착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햇빛을 받으며 사자평에서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천리순례 최대 난코스인 사자평을 넘었다. 이제 내일이면 불보사찰 통도사다.

천리순례단은 10월 17일 18일차 순례로 밀양 표충사부터 재악산 사자평을 넘어 울산 숙영지까지 총 25km를 걸었다.

최신뉴스

[영상] 천리순례 15일차, 상월결사-조계종 토크콘서트 개최



[영상]상월결사 삼보순례단, 경북서 경남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사노위, 무연고사랑자 추모위령제 봉행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와 코로나19 극복"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이사장 재선출에 청

인기뉴스

-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2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 3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자"
- 4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이날 순례에는 순례 중 가장 많은 3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밀양 표충사 숙영지에서 순례단은 밤잠을 설쳤다. 전국적인 한파특보로 표충사 숙영지의 수온계는 새벽부터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기상시간은 새벽 4시였지만, 새벽 2시부터 숙영텐트에서 나온 이들이 많았다.

이날 순례에는 천리순례 기간 최대 인원이 일일참가자로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국장단은 3일 연속 참여했으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 40여명을 비롯해 전국의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5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studio GONG



[영상] 상월결사-조계종 포교원 토크콘서트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



아침 해가 뜨는 시각,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재악산 정상으로 향하고 있다.

순례단과 이들을 외호하는 불자대중들은 새벽별을 보며 불교종흥을 발원으로 사자평 구간을 넘는 의지를 다졌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사찰 입구부터 오르막길이 펼쳐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정상에서는 지역불자들이 따뜻한 수건과 음료 등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재약산 사자평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예고된 만큼 험난한 순례가 예고됐다. 하지만 부처님 가피로 사자평 정상까지 추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순례단이 힘들 때면 재약산 계곡물 소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사자평 정상에서는 갈대밭이 순례단을 반겼다.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처럼 햇빛이 순례단에 비쳐졌다. 정상에서는 미리 나온 표충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불자들이 따뜻한 수건가 아침공양거리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자평 정상에서 스님들과 환담을 나누는 회주 자승 스님

여기에 사자평 칼바람에 흐른 땀이 식고 추위가 느껴질 때 짬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직접 지게를 지고 따뜻한 쯔빵을 날랐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천막결사 당시 대중들의 공양을 받은 입장에서 이번엔 순례대중에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 함께 걷지 못했지만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불교중흥으로 이어지기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자평에서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이 따뜻한 편뺑을 직접 지게를 지고 날라왔다.

사자평에서는 순례의 깜짝 이벤트도 마련됐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리꾼 장사의 씨의 구성진 노래소리는 행선 중의 어려움을 모두 잊게 하기 충분했다.

사자평 정상에서의 잠간의 휴식을 뒤로, 순례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순례단을 반긴 갈대들이 숙영지로 향하는 순례단을 배웅하는 듯했다.



사자평에서는 소리꾼 장사의 씨의 공연이 진행됐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울려 퍼진 구성진 가락에 순례단의 마음은 따뜻했다.



생각지도 못한 전방 배달에 순례단에서는 웃음꽃이 폈다.

순례 중 최다 일일참가자가 참여한 이날 순례에서 순례단과 일일참가자들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십수일간 순례로 다져진 순례단의 산행과 일일참가자들의 산행 속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재약산을 내려온 순례단은 내일 일일참가자들을 기다린 뒤 회향의식을 가졌다.



순례단이 사자평 정상을 출발해 하산길에 오르고 있다.

이날 참여자로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 국장단이 14일 포교토크콘서트 후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과 동국대 임직원, 학인 스님 41명과 연운사, 수곡사, 제주 쌍계사, 대전 진안사, 창원 안국사 등에서 순례에 일일참여자로 참가했다.

또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진행하는 대승투어를 통해 부분참가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원욱 국회정각회장은 “불교종흥 뿐만 아니라 국난극복을 위해서도 스님들이 나서준 것에 불자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 드린다”며 “많은 국민들도 이 같은 뜻에 공감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숙영지마다 많은 불자분들이 호응해줘 기쁘다. 불교에서 그동안 법회 위주였지 이러한 행선은 없었다. 신심과 원력으로 걷는 이 자리에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두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종흥을 위한 결사가 완성되도록 순례 문화가 새로운 신행문화로 자리잡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재약산을 뒤로 순례단이 울산방향으로 하산하고 있다.

한편 10월 18일 19일차 23Km의 순례를 끝으로 순례단은 양산 통도사에 도착한다. 울산 숙영지를 출발해, 상북면과 교동리, 가천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에 당도해 새로운 불교중흥 서원을 뒤로 회향한다.




 Hyunbul News hyunbulnews@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자승 스님](#) [#상월선원](#) [#천리순례](#)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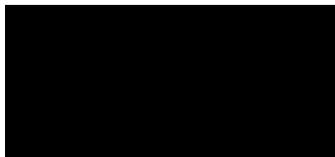
관련기사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포교콘서트] 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기법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국민에 치유 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2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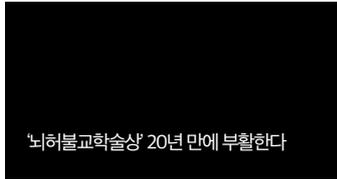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광명사 52년, '새마음불교운동' 정법도량으로 성장
 우중행선(雨中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지 되새기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이 시각 추천뉴스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대행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논하다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by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불교종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AD	AD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7년'동안 갇아라? '1억대출' 신청자 몰렸다.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p>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p>	 <p>템플스테이 체험한 평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p>	 <p>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p>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현대불교

UPDATED. 2021-10-18 19:27 (월)

☞ 제보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구독신청
-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